

항구도시 영화 되찾자... '제1회 영산포의 날' 개최

나주시 내일 영산포여중서 3개 동 주민 화합 행사 역사 재조명·지역 발전 다짐

나주시가 호남의 대표 항구 도시였던 영산포의 옛 영광 되찾기에 나섰다. 나주시는 9일 오후 2시 영산포여중학교 강당에서 '제1회 영산포의 날 제정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영산동, 이장동, 영강동 3개 동 주민들이 '영산포' 주민으로 하나 된 날을 제정해 화합과 자긍심으로 영산포의 부흥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기념식은 나주시립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옛 영산포 사진을 담은 추억의 영상 상영, 시정발전 유공 시상, 경품 추첨 등이 진행된다. 영산포는 영산강이 바닷길과 통하던 시

대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남해안 지역 대표 항구로 번영을 누렸다. 특히 영산포는 조선 초기 영산강의 수운(水運)을 이용해 한반도 남부지방의 전세(田稅)를 거둬 영산창(榮山倉)에 모았다가 서울로 다시 운반하는 조운(漕運) 기능을 수행했다. 이후 영산포는 조선 중종 때 영산창의 기능이 영광 법성창으로 옮겨져 폐지됐지만 수운에 적합해 전라도 남해안 일대 산물 집산과 거래 중심지로서 상업무역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또 영산포는 1900년대 초 일제강점기 수탈로 인한 근현대 아픔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영산포에는 나주평야에서 생산된 쌀 수탈 거점이었던 동양척식주식회사 문서고 를 비롯해 조선식산은행, 일본인 지주가 육 등이 아직도 남아있다. 영산포의 쇠락은 1970년대 이후 영산강

하구언이 설치되면서 배가 드나들지 않게 되자 포구 기능을 상실하면서 시작됐다. 영산포의 대표 음식은 알싸하게 코끝을 자극하는 속성된 '홍어'다. 속성 홍어의 유래는 고려말엽 일본 해적들이 남해안 지역을 노략질하자, 흑산도 인근의 영산도 사람들이 영산포로 피난길에 오르며 싣고 왔던 홍어가 발효되면서 맛이 좋아져 즐겨먹게 됐다. 영산포 주요 역사는 ▲1927년 영산포 읍 개칭 ▲1981년 금성시 개칭 시, 영산포 읍 5개 동 분리 ▲1995년 사군 통합 때 3개동(영산동, 이장동, 영강동) 분리 운영 등이다. 이기준 영산포의 날 추진위원장은 "이번 행사는 전라도의 대표 항구 도시였던 영산포의 옛 영광을 되살리고, 재조명하여 영산포인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영산포는 영산강이 바닷길과 통하던 시대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남해안 지역 대표 내륙 항구로 번영을 누렸다. 1979년 당시 영산포 선창과 등대 모습. (나주시 제공)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나주시, 25일까지 실시

나주시는 오는 25일까지 지역 내 모든 가구와 주택을 대상으로 '2019년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이 주관하고 나주시가 실시한다. 내년 '인구주택총 조사와 농업조사'를 앞두고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각종 표본 틀 제공을 위한 기초 정보 파악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조사는 올해 11월1일 기준, 빈집을 포함한 6만2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거처종류, 빈집여부, 거주가능 가구 수, 농림어가 여부 등 총 12개 항목에 대해 조사원 현장 확인과 직접방문(전체 15%) 방식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부터는 태블릿 PC를 활용해 현장에서 조사내용을 바로 전송하고, 통계 상황실에서 조사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전자면접조사 방식이 도입된다. 실시간 모니터링은 통계 데이터 누락과 중복을 방지함으로써 통계자료의 품질 향상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는 이번 조사를 앞두고 조사요원 48명을 채용하고, 조사지침과 태블릿 PC 매뉴얼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부터는 '전자서비스 지도'를 도입해 조사원들의 편의도 크게 개선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조사수집된 자료는 통계작성 목적 외의 타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며 "조사원 방문시 안심하고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빅스포 참가 나주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홍보

기술 지원·혜택 알리고 입주기업 상담 등 주력

나주시가 '2019 빛가람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 빅스포)'에 참가해 빛가람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홍보에 나섰다.

나주시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는 '2019 빛가람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 빅스포)'에 참가해 빛가람 혁신도시 내 조성된 산·학·연 클러스터 홍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사진>



빅스포는 광주광역시와 한국전력이 공동주최로 올해 5회 차를 맞아 '디지털 플랫폼(Digital Platform)'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한전에 따르면 디지털 플랫폼은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모든 것이 촘촘하게 이어진 초연결 사회(Hyper-Connected Society)에서 일어나는 글로벌 에너지산업의 거대한 변화(Mega Shift)에 주목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행사장에는 299개 기업·기관이 참여하는 신기술전시회를 비롯해 국제컨퍼런스 51회, 국제발명특허대전, 일자리박람회 등 에너지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시는 신기술전시회에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홍보와 입주기업 상담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빛가람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는 용지 41만5000㎡, 84필지(13개 블록)로 ▲에너지 ▲농·생명 ▲정보통신 ▲문화에 속 4개 분야 특화단지로 조성됐으며, 현재 69필지(용지 33만9000㎡) 82%가 분양됐다. 또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는 에너지밸리 조성 활성화에 힘입어 1분기 총 205개 기업이 입주했으며 한전공대(2022년 개교 예정) 설립 추진 등 에너지 산업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특히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는 한전과 한국콘텐츠진흥원,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전남테크노파크, 녹색에너지연구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실감미디어 산업지원센터 등이 입주해 있어서 입주기업에 큰 힘이 된다. 시는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 3년간 임대료, 분양비 이자를 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방세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빅스포를 통해 빛가람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과 기술 지원 인프라를 적극 알리는 기회로 만들겠다"며 "나주시는 에너지밸리 활성화, 한전공대 설립,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분양 등 에너지 분야 현안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빛가람 혁신도시를 전남도가 추진하는 산업 거점으로 성장시켜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공공 갈등 해소·대민 소통 강화 역량 키운다



나주시, 직원 150여명 대상 교육

나주시는 지난 5일 대민 업무 직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공공갈등 해소와 대민 소통 강화를 위한 '공공갈등관리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교육은 정책 추진 및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상황 해소에 대한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소 김강민 교수가 교육을 맡았다. 김 교수는 공공갈등관리와 어려운 이유와 주민들의 선입관, 갈등을 높이는 문장, 공공갈등 일반 구조 현황, 지역별 분쟁 분포 및 지속기간 등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갈등과 갈등조정 시스템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강연을 진행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한 실무자의 갈등관리 능력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다"며 "교육을 통해 막연하지만 했던 갈등관리에 대한 인식 전환의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2013년 '나주시 갈등관리 및 조정관'을 제정, 체계적인 갈등 관리를 위한 공공갈등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규정을 위해 갈등관리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다문화 부부 4쌍 전통 혼례식

나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관내 다문화 부부 4쌍에 대한 합동 전통 혼례식을 가졌다. 나주시는 지난 2일 나주향교에서 신랑·신부 가족, 친지 등 객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 부부 4쌍의 합동 전통 혼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나주향교 고광수 전교의 한국 전통 혼례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하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관심을 끌었다. 시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관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을 올리지 못한 채 살고 있는 다문화 부부를 대상으로 4년째 전통 혼례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위광환 나주시 부시장은 "한국 전통 혼례로 백년해로를 약속한 다문화 부부들의 앞날에 행복과 나날이 가득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자 여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문화적 장벽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062-412-2800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함평수목장

함평군 대동면 소재
광주화장장에서 46km(약 50분 소요)
목포화장장에서 39km(약 35분 소요)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